

무안~기타큐슈 항공기 주 3회 운항 광주·전남도 '소호무역' 활발해진다

10월 9일부터 월·목·토 출발
이륙 후 45분이면 도착
2박3일 호텔 조식 20~30만원대
'소호무역 스타디 투어' 50명 모집

? 소호무역
개인이 직접 외국에서 판매 아이템을 발굴, 해당 상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원스톱 무역. 좁은 의미로는 개인 면세범위 안에서 상품을 외국에서 직접 구입·운반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보다 이상도 포함.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일본 소호(작은 사무실 및 가정에서 업무를 하는 소자본 개인 사업자)무역이 더욱 수월해 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9일부터 무안과 일본 기타큐슈를 오가는 항공기가 1년간 매주 3차례 운항, 소자본 무역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지역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9일부터 1년 동안 매주 월, 목, 토요일마다 무안공항을 출발,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 공항에 도착하는 준 정기 항공편이 운영된다. 무안공항을 이용해 일본으로 가는 준 정기 노선이 개설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소호무역업계에서는 무안~기타큐슈 간 준 정기노선이 광주·전남지역 소호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소호무역이 활성화된 부산지역의 경우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배편으로 거의 하루가 걸리지만 무안~기타큐슈까지는 비행기 이륙 후 4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업무를 위해 일본을 오가는 비용 역시 무안



오는 10월 9일부터 무안에서 일본을 오가는 전세계 스타플라이어 A320기종.

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2박3일에 호텔과 조식을 포함 20~30만 원대로, 타지역에서 배편을 이용할 경우에 비해 오히려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한 소호무역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관련 사업을 구상하거나 창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소호무역 스타디 투어'가 마련됐다.

오는 10월 12일과 15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소호무역 스타디 투어'는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 기타큐슈와 후쿠오카 현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기타큐슈와 후쿠오카 일대에는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소매가보다 최고 70%가량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도매상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의류 및 숙옷 도매상인 푸로르도 마루미추, 가방 및 신발 도매상인 네고로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월상품 등을 주로 거래하는 국내외 달리 현재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을 30~40% 할인 판매하는 규슈의 토스프리미엄 아울렛을 비롯해 백화점과 전문상가, 프리마켓 등도 운영되고 있다. 일본 국내 차편이나 항공편을 이용하면 인근 오사카나 도쿄까지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지역 소호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은 그동안 배편이나 항공편이 거의 없어 일본과의 소호역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무안~기타큐슈 간 항공편이 생기면서 무역

창업이 가능해졌다."라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 청년 창업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개인의 성공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코다리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차례 운항하고 중단되는 단발성 노선이 아니라 내년 말까지 이어지는 준 정기 노선이라는 점도 소호 무역을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년부터는 정기노선으로 승격된다는 점에서 '소호무역'의 불모지였던 광주가 대 일본무역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62-956-397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계현 소장의

특 특

창업 이야기



외식업 유행 싸이클, 너무 빠르다

외식업체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심화되면서 보다 색다르고 더 나은 신메뉴를 개발하려는 끊임없는 노력들은 우리나라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다양한 메뉴를 보유한 외식강국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는 기존 메뉴를 업그레이드시킨 전문점들이 등장하고, 거기에 또 다른 방식으로 메뉴를 특화시킨 더 이색적인 메뉴의 전문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외식업종의 전반적인 수명은 단축시키는 '빠른 유행 사이클'이라는 어두운 외식 생태계의 모습도 자리한다.

외식업종의 유행 사이클이 빨라진다는 의미는 기존 외식사업자들에게는 흐름에 맞춰 메뉴나 업종을 전환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과 함께, 이로 인해 요구되는 인테리어나 간판 등에 대한 재투자 성격의 경제적 부담도 동반된다. 다시 말해서 돈이 좀 모일 만하면 재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으로부터 탈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행 사이클을 타지 않고 생명력이 긴 '트렌드 프리형' 업종을 창업아이템으로 선택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녹록하지 않다. 김밥전문점의 시장상황에서 보듯이, 업종 특성상 유행을 타지 않는 트렌드 프리형 창업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를 고급화시킨 카페형 김밥전문점들의 등장으로 결국 시설 부문에서 유행 사이클에 휘말리고 말았다. 경쟁 김밥전문점들에 밀리지 않으려면 그들도 이전 시설부문에 대한 재투자 카드를 먼저 꺼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제 트렌드의 민감도를 메뉴나 업종에서만 찾지 말고, 시설부문에 대한 트렌드 민감도도 체크한 이후에 창업아이템을 선택해야 하는 이중적 고민을 해야 한다.

또한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기력이 출중한 주조연급 연기자들에게 수식어로 곧잘 붙는 미친 존재감이라는 표현이 외식업도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웬만해 경쟁력이 있다 싶은 외식업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미친 존재감 같은 통통 튀는 독창적이고 이색적인 메뉴 한두개 꼽은 창작해야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가장 좋은 창업아이템 선택방법은 유행을 타지 않는 장수업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유행 아이템을 선택했다면 해당 아이템의 유행이 쇠퇴기에 이르기 전에 빠른 업종전환을 통해 폐업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업종전환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자금축적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유행을 타지 않는 창업아이템의 특성상 유행을 타는 창업아이템에 비해 시장 진입자들이 많아서 경쟁은 더 치열하다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된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감안하면 역시 가장 이상적인 외식 창업방식은 유행을 타지 않는 창업아이템으로 경쟁업소들보다 비교우위에 선 입지를 선점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창업지원 학력차별? ... 고졸이하 지원 전체의 0.7%

창업 맞춤형 지원사업 분석

고졸 이하 학력자가 창업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전안울)의원이 창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창업맞춤형 창업지원사업'의 올해 지원대상자 학력을 분석한 결과 1802명 가운데 석·박사 515명(28.5%) 등 99%가 전문학사 이상 학력이었다고 고졸 이하는 0.7%인 1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3~2014년 창업맞춤형 사업에 선정된 사람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선정된 1830명 중 석·박사 508명(28%) 등 대졸이상 학력이 1617명으로 88%를 차지했다.

나머지 213명(12%)이 전문학사 미 학력으로 조사됐지만 이중 대다수는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중퇴자로 추정된다는 것이 관계들의 진단이다.

업종별로도 정보통신 778명(37.8%), 공예

디자인 336명(16.3%), 기계재료 293명(14.2%), 전기전자 240(11.7%) 등 고학력 전문직종에 창업맞춤형 사업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진흥원은 지난 5년간 19개 창업지원에 6473억원을 사용했다. 주요 사업은 ▲창업맞춤형 ▲선도벤처창업지원 ▲창업선도대학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등 4가지였다.

이 가운데 1299억이 지원된 창업맞춤형 사업은 총 2382곳에서 창업에 성공, 매출액 1758억원을 올렸다. 195억원이 지원된 선도

벤처창업사업은 218개 업체가 창업에 성공, 44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160억원이 지원된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은 1694곳이 창업해 매출액 1222억원을 올렸고, 201억원이 지원된 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 249곳에 87억원의 매출을 올려 투자 대비 매출성고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박완주 의원은 "고학력 사회의 고학력·고부가가치 창업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창업지원은 적은비용의 생계형 등 보다 폭넓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창업지원이 자칫 학력의 부익부 빈익빈이 우려되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거지역 매매 토지 직거래

공단 5백만평, 관광단지 1,000만평 사이의 **소액투자 최적지**

- 물건1 - 2100㎡ (635평)
- 물건2 - 378㎡ (114평)

주인 직매 010-5450-1172

나주혁신도시 하늘숲

타운하우스 분양 모델하우스 오픈

자연과 도시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대자연 속에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초특급 독립생활!!

-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쾌적성이 결합
- 넓은 개인정원과 높은 일조권 확보
- 보안 및 관리가 쉽고 소음과 주차문제가 없음
- 개인 프라이버시의 철저한 보장
- 다양한 공동부대시설(공감대 형성의 커뮤니티 시설)

자연과 사람을 위해 집을 스케치하다!

시공 시행 : **성천종합건설(주)** 성천 **하늘숲** 타운하우스 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상담문의 010-6565-2010

근조화환3단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축하화환3단
결혼, 고희,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전국 ▶ 70,000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정미칠 누수 및 습기 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넓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積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그림무늬, 무늬에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연지 방수, 비파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